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혜월 스님(3)

제자들,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혜월 스님,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다

혜월 스님이 61세 때 부산 선암사 조실로 계셨는데, 몇 해를 두고 개간한 땅이 2000평이나 됐다. 이것을 육심내는 집 밑의 속인들이 스님의 천진한 마음을 이용해 싸게 샀다. 이에 상좌스님들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스님, 그 돈은 두 마지기 값밖에 안 됩니다" 하고 원망하듯 말했다. 스님은 상좌들의 말을 무시해 들고 난 후 이렇게 꾸짖었다.

"이 녀석들이! 난 닷 마지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 두 마지기 값이 있으니 번 것이 아니냐? 사문은 육심이 없어야 해!"

"스님, 하지만 손해가 너무 많습니

다."

"히! 히! 인간의 마음속에는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지 않느냐?"

**형식에 걸림없고 집착없어
머무는 바 없는 '본원정'**

일과 수행 병행 '평생 보임'

혜월 스님의 법문을 들은 제자들은 2000평의 땅, 재물이란 상(相)에 걸려 무소유의 천진불(天真佛인) 조실스님의 경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들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 선화는 우리가 어떻게 보시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예이다. 보시의 핵심은 대하게 숨겨진 소유욕과 끈없는 육심으로부터 수행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와 '나의 것'이란 생각이 없어서 늘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 '무심도인'이란 별명을 들었던 혜월 스님의 면목이 대개 이러했다. 스님 개인의 사생활은 아주 검소하고 순박해서 소지품이라곤 발우 한 벌에 작은 이불 하나, 삼베옷 몇 벌 뿐이며 밤에 잘 자는 걸로 요를 가는 일이 없이 맨바닥에 잠깐 눈을 붙일 뿐이었다. 그리고 정진 시간 이외에는 늘 부지런히 일하고 개간했으며, 비 오는 날이면 머슴들과 한 방에서 새끼를 꼬고 짚신을 삼으면서도 동중(動中) 공부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처럼 스님은 언제나 형식에 걸림이 없고 무엇에도 집착 없이 본원 청정(本源淸淨)한 마음자리에 머무는 바 없이 머물렀다. 모든 사람이 가진 청정한 자성(自性)에는 본래부터 구축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우주를 둘러싸고도 모자람이 없다. 또한 분별심을 떠난 일심(一心)은 나와 너라는 구별이 사라져 '나의 것'이라는 소유욕이 없는 텅 빈 마음이기에 송곳 꽃을 땅도, 송곳이란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자리이다. 사람의 본래 마음 자리에는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다'고 이른 뜻이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스님은 법거랑에 있어서도 '격식 밖(格外)'의 언어와 행동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자비심을 갖추었으니, 스님과 신

도들 모두 진심으로 절복(折伏)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스님은 본래부터 성품이 부지런했지만, 경허 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받은 뒤로는 일과 수행을 병행하며 보임(保任: 화두를 타파한 뒤 보호하고 지켜가는 佛行 수행) 공부를 더욱 철저하게 했다. 중국 백장(百丈) 스님의 청규(淸規)인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는 정신으로 일관한 셈이다. 잡시도 쉬지 않고 도량을 쓸고 닦고 짚신을 삼으며 새끼를 꼬는가 하면 노는 땅, 솔밭은 땅을 파 일구어서 좋은 논밭으로 개간하는데 더욱 힘썼다. 당시 홀로도 일하지만 대중을 동원하여 삼, 팥, 가래 등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산을 개간하는 일로 수행을 삼았다. 그래서 당시 삼대결승(三大傑)으로 불모지를 개간하는 혜월 스님, 도량 중수를 많이 하는 만공 스님, 역경 포교에 전념하는 백용성 스님이 회자되기까지 했다.

김성우 객원기자

제대로 발심하여 망상으로 망상 다스린다

김천 인적사 매주 정진 주간 정해 수행...혜철 스님 수행 방편따라 지도점검 '효과'

"일념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망상이 쉬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기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에 나머지 망상은 저절로 밀려납니다. 기도 자체를 즐기며 하고 싶어 해야 싫증이 나지 않고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망상으로 망상을 치료하는 것이니 순일하게 터득하면 기도하는 마음이나 망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마음(一心)이란 것을 알기 위하여 방편으로 구분하여 찾아보는 것입니다."

4월 16일 경북 김천시 남면 부상리, 금오산 동쪽의 수려한 계곡인 '금오동천'에 자리 잡은 인적사(주지 혜철) 주지실. 혜철 스님과 한 신도와의 수행상담 및 점검이 진지하게 진행 중이다. 정기법회가 열리는 일요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대구, 부산 등지에서 온 신도들이 주지실 방문을 노크한다. 점검을 받는 신도들도 기쁘게 상담에 임하고, 주지스님 역시 한 잔의 녹차를 마시며 격식 없이 참선, 진언, 기도 등 수행 관련은 물론이요 일상의 고민까지 들어주고 해법을 제시한다.

● 함께 일하고 함께 정진하는 도량

지난 해 5월 27일 개원한 인적사가 불과 10개월 만에 300여 원력불자들이 모인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은 것은 주지스님이 처음부터 수행도량을 표방하고, 신도들로 구성된 사찰운영위원회(위원장 기기회)가 절살림을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팔공산 은혜사 중앙암에서 혜철 스님을 따르던 신도들이 사찰장건기금을 만들고 인적사 카페(cafe.daum.net/Injksa)를 만들어 인터넷 수행상담을 결연한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적사의 강점은 참



혜철 스님(맨 왼쪽)의 법문을 경청하는 인적사 신도들.

선, 간경, 주벽, 참회 등의 전통수행을 종합해 근기와 성향에 맞게 수행하도록 한다. 특히 매주 정진주간을 정해 한 수행방편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한 것이 주요했다. 이를테면, 첫째 주는 다리니 주간으로 정해 '신도장구대다라니' 주력수행을 20편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둘째 주는 금강경 주간으로 삼야 <금강경>을 3회 이상 독송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주는 참회주간으로 108참회 절수행을 하고, 마지막 주는 상담주간으로 정해 주말철이 참석정진으로 한 달을 회향하는 등 일상적인 수행과 점검이 이어지도록 한 것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혜철 스님은 "기복불교가 만연해 성인(聖人)의 가르침이 송고해서 자신도 조금이나마 배워보겠다는 간절한 자세로 절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며, "종교가 무엇이며, 의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발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발심만 제대로 되면 바쁜 일상 속에서 적합한 수행을 하고, 스님에게 인터넷 점검을 받는 것도 무방하다

는 것이다. 절에 자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 간절함과 지속성이 수행의 핵심

"종교란 더 이상 가르칠 것과 배울 것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터득하여 중생에게 이rozum을 주고 길잡이가 되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데 종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바탕위에 성인의 가르침을 받들고 터득하여, 고정관념과 고통에 휩싸인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열어나가는 거죠."

스님은 수행이란 것이 그 방법보다는 간절함과 지속성, 그리고 실천에 있다고 생각한다. 늘 바깥의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자성불(自性佛)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림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뽕처럼 대자유인

로 당당하게 걸어가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 법을 신심으로 실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남의 말에 꼬달리거나 꾸며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에도 마음 쓰지 않고, 온화하여 말없이 행동합니다. 생명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무엇이든 평등하게 보며 늘 미소를 머금고 상대를 포근하게 합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어서 건강하고 심성이 맑아 정진적 자원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늘 행복하고 대자유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온 요즘, 인적사에는 평일에도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연등을 만든다. 사찰의 주인이 따로 없어서 모두가 주인이기에, 정진과 바라밀행 역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게 된다. 그야말로 일과 수행, 세간과 출세간이 들어 아닌 흐트란 모습이다.

● 좋은 절의 조건...정법과 화합

혜철 스님은 좋은 절을 구분하는 여섯 가지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가? 수행이 바탕이 되는 절인가? 스님이 재물이나 명예에 연연하는가? 사회 현실에 이르게 하는데 종교의 목적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도량으로 가꾸어 신도들의 수행 생활에 불편이 없는 장소를 만드는가? 신도들 간에 편견 없이 화합하여 정법을 받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등이다.

이 기준을 참고하면 훌륭한 스승, 좋은 도량, 뛰어난 도반을 만나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진도행(40· 대구 북덕동) 보살은 "정진주간에 맞춰 수행과 봉사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불심이 강해짐을 느낀다"며 "절에 오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좋은 우리 절'이라는 자랑을 절로 하게 된다"고 말한다.

절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기록화 되는 신도를, 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나도 안다는 분별심만 키우고 실천할 줄은 모르는 불자들, 수행을 지도하기보다는 천도해 하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적지 않은 요즘, 금오산 아래에서 부는 조용한 변화의 바람은 시사 하는 점이 많았다. '부처님(能仁)의 교묘한 침묵(寂默)'이란 뜻을 지닌 인적사(仁寂寺)가 부처를 선방하는 선불장(蓮佛場)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인적사는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강경 법회를, 매월 넷째 토요일 오후 8시에 철야참선법회를 연다. (054)431-1192 김천 인적사·김성우 객원기자

수행계시판

일요 시민선방

강화도 연등국제선방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2~8시 시민선방을 운영한다. 좌선, 대중운량, 발우공양, 숲속 걷기명상 등으로 진행된다. 매월 둘째 토요일에는 삼천배, 매월 넷째 토요일 아비라기 도로 특화주 주만수행이 마련된다. 매주 밤(삼천배 주말 제외) 템플스테이도 운영. (032)937-7033

아비라기도

해인사 백련암은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정오까지 아비라기도를 실시. 예불대참회(108배), 법신지연(30분), 대불정응염선주 독송 등으로 진행. (055)932-7300

12연기와 위빠사나 수행

서울 한국위빠사나선원 5월 12일부터 12연기와 위빠사나 수행 토요일 강좌를 개강한다. 오후 2-5시 자율수행 및 명단, 6-9시 12연기 법문, 위빠사나 수행 명단 등으로 진행. (02)512-5258

터 12연기와 위빠사나 수행 토요일 강좌를 개강한다. 오후 2-5시 자율수행 및 명단, 6-9시 12연기 법문, 위빠사나 수행 명단 등으로 진행. (02)512-5258

삼천배 철야정진

청경 스님은 4월 28일 오후 9시부터 제78의 법원정사 삼천배 철야정진을 갖는다. (02)456-0035

평생부자 지갑 **오마니반메홍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남성용 솔나노 지갑

여성용 銀나노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속의 보물까지 얻는 평생 부자

역경화적으로 일반폐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폐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고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를 붉은 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폐지해라 한다. 황금폐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

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않고 온다는 좋은 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움들이 신통묘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오마니

반메홍 복지갑이 황금폐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오마니 반메홍 복지갑은 사용해보면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났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기인을 만나고, 안 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당산으로 큰 돈을 받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 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 감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금·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폐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즈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인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폐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오마니반메홍복지갑을 사용하시는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염주 인도산 자수정 108 염주

승리와 행운의 염주



특별중정품 손목단추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영원히 살아숨쉬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가 시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수정은 몸에 지니고 있으면 화를 쫓고 행운과 소망하는것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 모자를 쓴 고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 이마에는 자수정 금 조형으로 구입객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며 소원성취와 사업번창을 위한 365일 특별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다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삼재소멸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폐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재난과 고통속에 살을 시작할수도 있는 어려운 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재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세수가 있으므로 위협하지 말고 일을 벌이면 어려움

을 당할수 있으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다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환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도산(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잡귀를 물리치고 다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부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근신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금도 감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자동차 금강저는 항상 사고의 위

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다쳐올 화를 미리쫓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삼고금강저를 운전석위에 염주를 빼고 걸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자동차용금강저 38,000원
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금강저

사고 예방과 화를 쫓는 영험!!

